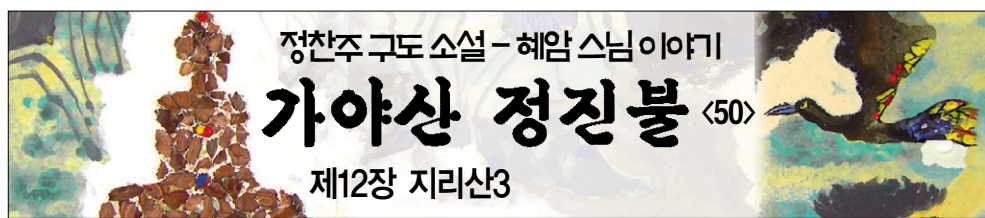


분별과 선택에 따라 모든 관계는 달라진다



여연은 상무주암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해암 스님에게 삼배하고 일어섰다. 해암 스님에게 차비를 탄 여연은 상무주암을 떠났다. 환암에서 바로 해인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지리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산청 쪽으로 가 대원사를 참배했다. 대원사는 성철스님이 출가 전에 머물렀던 도량으로 비구니 대중이 정진하고 있었다.

여연은 대원사에서 누구를 만나지 않고 오롯이 참배만 했다. 그리고는 곧 나와 남강의 지류를 따라 강변길을 걸었다. 버스가 오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다가 강변으로 내려가 무심히 강물들에게 눈을 주었다. 문득 강물 하나를 쫓자, 다른 강물들이 슬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강물들을 분별하는 동안 선택받지 못한 강물들이 아파하고 있었다. 강물들이 무생물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과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연은 잘생긴 강물 하나를 주었다가 놓았다. 그러자 그 강물은 여연이 버리므로 해서 버려지는 강물이 되었다. 분별과 선택에 따라 자신과 강물의 관계가 달라졌다. 그것이 운명이고 삶이었다. 순간 여연은 분별심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했다. 분별심이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마음이라고 깨달았다.

해인사로 돌아온 여연은 성철 스님의 간화선풍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부산 석남원에서 떠났다. 부산 석남원에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시명이 와 있었고, 백만배 기도를 마친 혜인이 와 있었다. 여연은 시

이름이 박살났다. 해암 스님이 호미로 텃밭을 내리친 것이었다. 여연은 놀란 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산으로 뛰었다.

“전축은 박살이 났고 나는 후딱따 산으로 도망쳤지요. 짧은 나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계산하고 그랬지요. 그게 오산이었습니다. 우리 스님은 산이 전문 아닙니까. 몇 십 걸음 만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순간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갑이 화를 냈던 스님께서 금세 누그러뜨리요. 그제야 나도 호미를 들고 가서 풀을 뺐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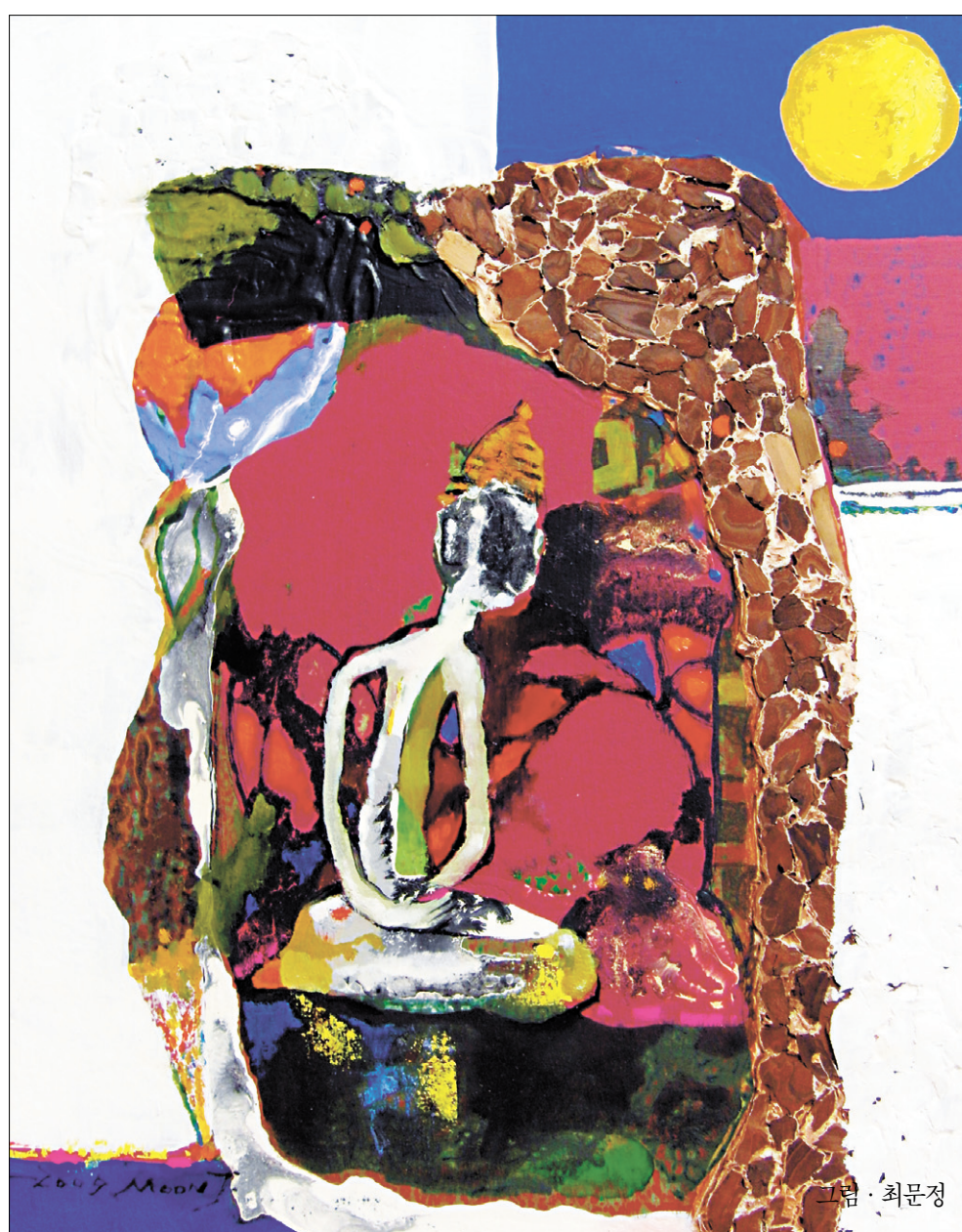
전축은 다행히 텃밭이 풀만 깨끗이 제거했지만 여연은 신도를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 원당암을 떠났다. 일꾼 시켜 전축을 지게에 지고, 자신은 책이 든 보따리를 들고 풀이 죽은 채 원당암을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여연은 나중에도 해암 스님에게 “지금도 음악 듣냐”라는 순경계의 경책을 받고 깊이 자책했다. 전축을 박살내는 역경계의 경책 때는 오기가 발동했지만 “지금도 음악 듣냐”라는 부드러운 경책은 은사 스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문수암까지 갔다가 일행은 되돌아서야 했다. 문수암은 행하니 비어 있었다. 토방에 등산화 한 켤레가 단정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다. 정경 스님이 아쉬운 듯 발걸음을 쉽게 돌리지 못했다.

“사형 되는 도봉 스님이 계신데 어디 출타하셨나 봅시다. 도봉 스님도 노장님 상좌지요.”

출타한 스님의 꼼꼼한 겨울준비 손길이 눈에 띄었



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듬어 산 입구에 쌓아놓고 일꾼들이 지게로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직원들이 불법이라며 지어 올린 나무들을 다 지고 내려가 버렸어요. 결국 허가를 낸 뒤 짓기로 하고 노장님이 서울로 가 당시 요직에 있던 허문도 씨를 만나 부탁했지요. 그래서 허문도 씨는 노장님께 격정 마시고 내려가시라고 했는데 서류를 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이나 서류를 냈는데 거절을 당했지요. 참 어려운 불사였어요. 노장님도 내가 원을 세우면 다 됐는데 도술암은 참 힘들다 하시면서 얼굴이 안 좋으셨습다. 그때 노장님 연세가 60대 중반쯤 됐을 때입니다. 근심어린 노장님 얼굴이 생생해요. 이후에 야허가가 날 계기가 왔지요. 열공님 승려대회가 끝난 뒤 1200명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올린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중앙에서 도와 군에 조사해 보라 해서 검토해보니 국립공원 안이지만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요. 토굴 터가 사사지로 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측은 산불 날 염려가 있다. 산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반대했던 것이지요. 결국은 국립공원 측에서 도장을 찍어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노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연 스님은 작은 소리로 진술하게 얘기했다. 정진하기 좋은 터에 암자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마음속에 묻어둔 우여곡절의 사연을 대연거사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대연거사는 저연 스님의 얘기를 결코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공치사로 듣지 않았다.

“허가가 나오니까 일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모래나 시멘트 등을 이고 지고 오르내렸습다. 그런데 산길기 좁아 긴 기둥이나 대들보는 지게에 지고 오를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책임진다 하고 산길가에 걸리적대는 나무들을 시원하게 베어 버렸습니다. 허가내줄 때 감정이 상했던 국립공원 직원이 또 올라와 비행기도 지나가겠다고 나를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지요. 결국 나는 불려가 조사받고 당시 7만원 벌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노장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경제적인 것을 다 해결했겠습니까. 노장님께서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나는 그저 노장님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할 것밖에 없어요. 노장님이 안 계셨으면 아깝도 없는 불사였지요.”

도술암 가는 길은 상무주암에 비해 경사가 완만했다. 가파른 산길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흙길이었으므로 감촉이 부드럽고 힘들지 않았다.

“도술암을 짓고 나서 청전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전은 못 들었습니다. 77년도에 해인사 들어와서 이듬해에야 계를 받았는데 노장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 늘 어둡다고 하셨지요. 순진한 정진이 너는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세파를 이겨낼 거냐 하시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상무주암 살 때는 나에게 종종 야단을 치셨지요.”

정경은 상좌들 중에서 잠이 많았고,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베고눕는 것을 참지 못했다. 일은 다른 상좌들이 너무 한 짐 할 때 다섯 짐을 했지만 정진은 서툴렀다. 한 번 수마에서 사로잡히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상무주암 살 때는 가부좌를 튼 채 졸다가 뒤로 벌렁 넘어져 해암 스님은 물론 대중 모두를 웃게도 했다. 해암 스님이 활액순환 장에 온다고 찬 벽에 등을 기대지 못하게 하니 졸다가 뒤로 나동그라지곤 했던 것이다. 그래도 해암 스님은 어린 정경을 아꼈다. 단식 용맹정진을 끝내고 나서는 걸어와 좋다고 하며 어린 정경을 데리고 영원사까지 포행을 시켜주었던 것이다.

여연과 정경은 해암 스님과의 옛 추억에 잠겨

어려움 끝에 해암은 청매조사 토굴터에 도술암 지어

명의 피아노가 놓인 석남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들었다. 목마름을 적시듯 음악에 빠져들던 여연은 61세의 해암 스님이 해인총림 유나로 임명되자,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 원당암에서 스님을 모셨다. 해암 스님이 도회지로 출타할 때도 여연은 스님을 그림자처럼 시종했다. 그러나 여연은 시종하는 데 익숙치 못했다.

클래식 음악에 심취하다가 원당암으로 돌아오니 적응이 잘 되지 않았다. 여연은 어렵사리 구한 새 전축을 원당암으로 가지고 들어와 틈만 나면 클래식 레코드를 틀었다. 그런데 하안거에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해암 스님의 가풍대로 원당암 대중들은 낮에 운력하고 밤에만 참선공부하는데, 여연은 운력에 나가지 않고 밤에 드러누워서 전축만 틀었다.

한 번은 해암 스님이 풀을 뽑는 운력에 나오지 않는 여연을 문밖에서 서너 번이나 불렀다. 음악에 취해 있던 여연은 해암 스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여연아!”

방 안에서는 바흐와 모차르트 음악 소리만 들려왔다. 여연은 바흐와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에 빠져 있던 것이다. 드디어 해암 스님이 분기병전하여 호미를 든 채 문 열고 들어왔다. 순식간에 전축의 텃밭

다. 톱질 입구 그늘에 시래기 재료가 되는 무청이 가지런히 널여져 있었다. 대연거사는 주인이 없으므로 문을 열지 못했다. 불탄에 과일 몇 개라도 올리려고 했지만 아쉬움이 컸다.

“노장님을 시종했던 시자들 모두 고생했지만 회한한 것은 지금 모두가 닳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장님께서 잘 사셨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고생을 했다니요.”

대연거사가 의아해하자, 저연 스님이 설명하는 투로 말했다.

“시종하느라고 노장님을 따라 저잣거리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만 살다가 도시로 나가면 마치 외출 나가는 군인처럼 출가분한 기분이 들지만 기대는 곧 허물어지고 맙니다. 부산이나 진주로 가시면 간혹 참선공부하는 보살님 댁에서 머무셨습다. 그런데 시자들은 음식에 대한 기대부터 접곤 했습니다. 노장님이 드시는 수제비는 틀리고 간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풀어도 맛이 없어요. 거기다가 노장님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되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노장님께서 장좌 불의를 하시니 시자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밤새 잠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자는 노장님이 도시로 출

타하실 때 따라가지 않으려고 피를 땀니다. 아마도 사형인 여연 스님도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노장님 시종할 때 깨나 몸이 수컷을 겁니다.”

그때 도봉 스님이 하산을 재촉했다.

“나는 이만 화실에 가봐야겠어요. 탕화를 보러 누가 오기로 했어요. 이거 함께 동행을 못해 미안해요. 하하하.”

“도봉 스님, 바쁘면 여기 오지 않아도 됐는데 고생 했어요.”

“아니요, 상무주암에 한번 오르고 싶어 왔어요. 와 보니 참 좋네요. 문수암도 좋고, 산중암지는 다 좋다니, 하하하.”

도봉 스님은 말씀마다 크게 웃었다. 스스름없는 말투와 너털웃음은 상대를 편하고 기분 좋게 해주었다.

도봉 스님은 영원사 입구 쪽에서 마친 절에서 나오는 빈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도술암 가는 산길은 왼쪽 산자락으로 붙어 있었다. 상무주암 가는 길과 반대편이었다. 이정표가 없는 산길이므로 지리를 잘 아는 등산객이 아니라면 도술암을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중 패서 노장님과 처음으로 산 곳이 상무주암이었어요. 제 나이 19살 때였지요. 늦어짐에 상무주암으로 와서 노장님 시종하면서 정진했지요. 그런데 그때 상무주암에서 청매조사가 사셨던 토굴 터가 보여요. 어느 날인가는 노장님께서 청매조사 토굴 터가 참 좋으니 한 번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들은 순간 귀가 확 울리면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무주암에서 첫 동안거를 보낸 정경은 해암 스님을 따라 해인사로 갔다. 해암 스님은 조사전에 3년 결사를 시작했고, 정경은 시봉을 몇 개월 하며 보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청매조사 토굴 터가 생각났고, 당장 가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지리산에서만 살았던 정경이었으므로 해인사 대중생활을 은근히 불편해하고 있는 터라 더욱더 그리움이 솟구쳤다.

정경은 해암 스님에게 말씀드릴까 말까, 하고 망설였다. 보고하면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다. 결국 정경은 첫서리가 내릴 무렵에 도망치듯 해인사를 떠났다. 천막 하나와 일주일 분의 양식을 챙겨 청매조사 토굴 터로 올라갔다. 다행히 산길은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만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토굴 터의 방치된 마당에는 자생하는 머루가 새까맣게 열려 있었다. 오미자 열매도 줄기에 등성등성 맺혀 있었다. 터 앞쪽에는 나뭇가지와 산죽으로 열기설기 지는 덧집이 반쯤 허물어져 있었는데, 수행자들이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다. 정경은 머루와 오미자를 따 먹으며 일주일의 살았으며 마음은 꼭 고향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했다.

결국, 해암 스님은 청매조사 토굴 터에 도술암을 짓기로 마음을 냈다. 정경이 토굴 터에 들른 지 3년 후였다. 해암 스님의 나이 63세 때의 일이었다.

“해인사 조사전에서 3년 결사를 마치고 영원사에서 좀 사시면서 결심하셨지요. 신도분과 같이 올라와 먼저 고사를 지냈어요. 허가는 87년 7월 7일에 났지만 사실은 노장님께서 허가가 나기 전에 지어보자고 하셨어요. 하루라도 좋은 토굴에서 정진하시고 싶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중사의 선지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래도를 배워라
불을 닦아 내드려야
여기가 나라라도 속지를 막지아라.
불꽃이 나타날 그때가 도제야야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중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계속>